

조사동향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Presidential Job Approval in the Poll Survey

배종찬*

Jong-Chan Bae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방식은 현실적인 체감적인 만족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할 정도로 측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과 조사결과의 활용에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첫째로 설문기획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성격의 설문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 척도에서도 응답자의 응답가능성을 기초할 때 4점 척도의 보기 구성보다 5점 척도의 보기 구성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응답하는 문항)과 정책관련 문항,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는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음’은 언론 매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대통령 지지도, 국정수행, 여론조사, 정책 결정

It is very vital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not only to be a political achievement of the president himself, but also to be an influential base of people-related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정책학), (주)리서치앤리서치 연구본부장(이사) 배종찬.
E-mail: jcbae@randr.co.k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newly developing ideas to compose an appropriate question and to point out the present problems in the utilization of survey results. At first, it turned out to be inappropriate to make a question for evaluation of presidential job approval in the perspective of questionnaire planning. As the respondents were not informed of what the president did, so they were more likely not to know whether the president did well or not. Secondly, the correlation analysis has been made between the evaluation question of the presidential job approval and policy-related questions including the direct one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in the aspect of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job approval is not accountable and the direct question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is at best explainable. In conclusion, it seems more persuasive to compare the statistical outcome of the presidential preference which has been derived of to the high rating what the respondents think comprehensively not depending on a subjective decision by mass media

Key words: presidential job approval, presidential performance, survey, decision making

I. 서 론

현재 많은 정치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서 실시하는 정기여론조사에서도 ‘선생님께서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실제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반응을 보인다. 2011년 초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고공행진’하는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 많은 신문들의 기사와 사설은 의아해 한다.¹⁾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1) 세계일보 2011년 2월 19일자 사설. 『“40%대 후반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체감민심도는 낮는데 여론조사 수치는 높게 나오는 현상에 대한 의문이다. 낮은 응답률, 집전화로만 조사하는 기법상 한계, 진심을 숨기는 관습적 태도가 요인일 것이다. 그 무엇보다 착시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임기 초반에 지지도가 워낙 낮았기에 그저 그런 대로 높다고 착각할 수 있다.』

우선 철학적 개념 정립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파악한다는 것이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떤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또는 검증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는 조사되는 질문내용의 단순성과 부정확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데 있어 지금처럼 단순히 1개의 문항으로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조사기관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질문의 유형이 다르고 설문지상에 배치되는 위치도 처음 또는 끝이거나, 어떤 질문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문항 앞에 위치하는지도 제 각각이다. 셋째로는 국정수행 지지도를 응답자들이 평가할 때 선택하는 척도의 적절성이다. 대부분의 국정수행 지지도 설문문항은 긍정평가를 의미하는 2개의 선택지와 부정 평가를 의미하는 2개의 선택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리커드 4점 척도뿐만 아니라 무응답자에 대한 강제분류(그래도 잘한 쪽에 더 가까운지 잘못된 쪽에 더 가까운지 말씀해 주십시오.)가 적절한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검증이 부재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 그리고 활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단순히 ‘긍정평가가 몇 퍼센트이고 부정평가가 몇 퍼센트이다’로 기술됨으로써 어떤 수준 정도가 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조사결과와 조사 시점의 대통령의 행위와는 어떠한 상관성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이 양산되어 왔다.

실제 사례로 2006년 중앙일보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와 같은 날 티엔에스(TN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한계($\pm 3.7\% \sim 4.4\%$)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다(조성겸 외 2007). 같은 시기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마저 그 결과가 다르다면 그 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라는 중요한 국정의 평가지표가 단순히 언론보도용 참고자료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응답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긍정 또는 부정평가를 하는 것인가?

둘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지’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내일신문 2011년 2월 14일자 기사, 『청와대 내부에도 '대통령 지지도와 체감민심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대선 공약 번복' 논란은 갈등관리실패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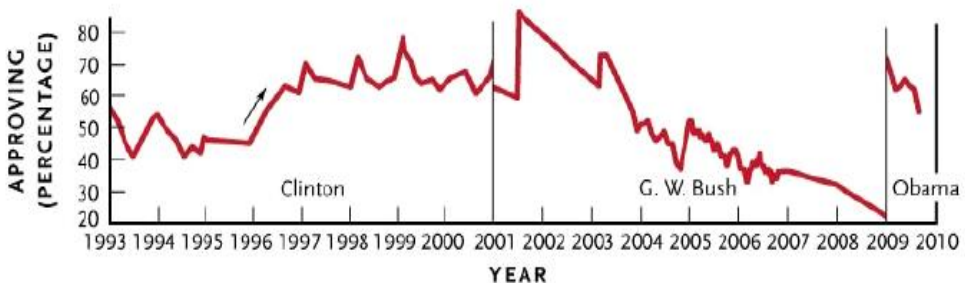
셋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결과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또는 낮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II.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의미

과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대통령 지지도는 정치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의 해석을 모두 시도할 수 있다. 정치적인 해석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지지도 추이 분석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재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 내내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의 경우처럼 클린턴은 재선되는 시점이나 재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거의 6~7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부시 대통령의 경우, 재선되는 시점과 임기말 모두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며 급기야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 주게 되었다. 이 그림을 볼 때 대통령 지지도는 직관적으로 대통령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 성공한 대통령 또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나누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평가에는 다분히 국민들의 객관적인 국정수행 평가가 시도되기보다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적인 지지 여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위기까지 내몰렸던 1997년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향



〈그림 1〉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빌 클린턴 vs 조지 W. 부시)

출처: American Government 11th edition, W.W. Norton & Company, 2010.

추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급상승 반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적 차원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 힘들며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층이 보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전폭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unconditional) 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클린턴 대통령을 이어 집권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기 집권시에는 대테러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의 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재선시점에 ‘반짝 상승’하는 정도 외에는 8년 임기 마지막까지 줄곧 지지도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강경태 2004). 급기야 20% 미만의 낮은 지지도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한편, 대통령 지지도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을 경우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지지도가 낮을 경우 대통령의 활동과 계획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지지도는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가상준 2005).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경우를 보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같은 대통령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와 주요 정책 이슈를 비교해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정책 추진의 동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2008년 11월~2009년 12월)

출처: 리서치앤리서치 정기여론조사, 전화면접조사 전국 800명.

이처럼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로서도 매우 중요한 잣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실사(fieldwork)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 미디어는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현행의 여론조사 및 결과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설문기획에 있어 대통령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의 구성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현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도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조사로 명칭하고 질문의 구성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묻고 있다. 여기서 가지는 문제 제기는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²⁾ 본 연구의 실험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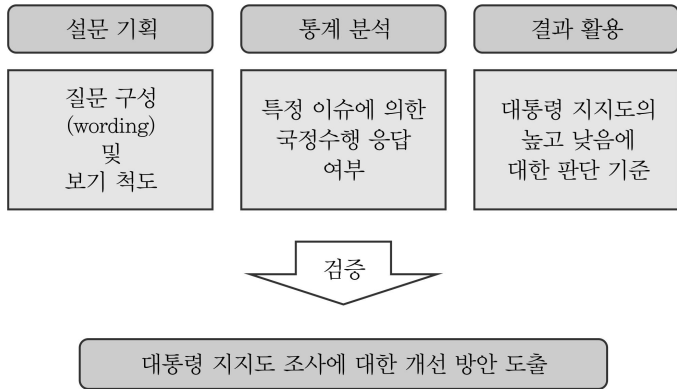
한편, 설문조사의 응답에 있어서 현행 다수의 조사들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우 잘하는지’,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인지’, ‘대체로 잘못하고 있는 편인지’, ‘매우 잘못하고 있는지’의 4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했듯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내용조차 모르는 응답자들에게 긍정과 부정 어느 한 쪽으로의 응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자율적인 의견 청취라기보다는 강제적 도출에 더 가까워 보인다. 따라서 5점 척도로 측정할 때 대통령의 지지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2) 미국 Gallup의 경우, “Do you approve or disapprove of the way Barack Obama(현재 시점의 미국 대통령) is handling his job as president?”로 질문하고 설문지 보기는 approve, disapprove 그리고 no opinion으로 구분한다. 이 영어 문장을 한국의 경우 ‘대통령으로서 일’이라고 직역하고 보기는 4점 척도로 ‘잘함’과 ‘못함’의 평가형태로 물어보고 있는데 approve와 disapprove는 대상에 대한 찬반의 개념으로 ‘지지 여부’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개념에 대한 반응이 다른데도 단순 직역된 질문과 자체적으로 설정한 보기(잘함 또는 못함으로 구분)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응답’이라는 여론조사의 취지에도 더 맞아 보인다. 설문을 부여하는 쪽에서 활용가치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 경우, 응답자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응답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무관해질 것이다(허순영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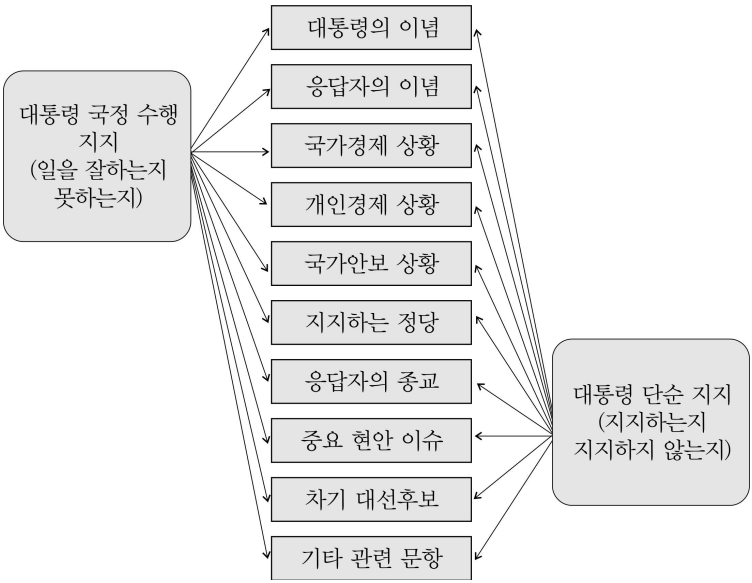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 있어 대통령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과 대통령 지지도와와의 상관성을 비교해 보았다. 대통령 국정수행을 국민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상황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시각(가상준 2003)과 경제적 요인이 대통령 지지를 설명하는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충분조건이 되진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이곤수 2009). 이처럼 대통령 지지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또는 비경제적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판단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지는 실제 개별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과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의 긍정과 부정평가가 전적으로 특정 이슈에 의해 귀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속성이 더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의미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실질적인 답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어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식화된 상대적인 비교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라고 했을 때 어떤 이는 이것을 높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낮다고(어쨌거나 긍정 의견이 50%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은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정확히 측정해내거나 같은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결과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높다고 인식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서 그 후보가 득표한 비율을 전체 국민 유권자(여론조사가 대체로 선거권을 지닌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의 비율로 나눈 것이 최대값이 될 것이다. 후자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과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인식한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관계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 모형

특히, 통계분석에 있어서 특정 정책 이슈가 대통령 지지의 긍정과 부정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4〉와 같은 상관분석 모델을 별도로 제시한다.



〈그림 4〉 상관 분석 모형

2. 설문 구성

연구모형을 토대로 <표 1>과 같이 설문을 구성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문항을 포함한 실험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응답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그 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으로 안보상황(남북관계와 외교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과 관련한 내용과 주요 현안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대통령 ‘단순 지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요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표 1> 설문 구성

구성요소	변 수	질 문
인구 특성	지 역	귀하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성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연 령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수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직 업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생활수준	귀하의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종 교	귀하는 어느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 문항	대통령 국정수행	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이념	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진보적이다가 0, 가장 보수적이다가 10)
	응답자 이념	귀하는 본인의 이념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
	국가경제상황	현재 국가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개인경제상황	현재 개인의 경제 상황은 어떠십니까?
	국가안보상황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지 정당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차기 대선	귀하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뽑으시겠습니까?
	주요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습득 경로	정치관련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얻으십니까?
	대통령 지지도	귀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않으십니까?

〈표 2〉 실험조사 개요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 방법	휴대폰 Random Digit Dialing	
조사 샘플수	1,000명	1,000명
조사 기간	2011년 9월 14일~15일	2011년 10월 11일~12일

3. 자료수집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응답자 모집단에 대한 포함범위(coverage) 문제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 실험조사는 휴대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휴대폰 RDD 1,000명 조사였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3.1\%$ P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아산정책연구원과 실시하는 정기조사 설문에 옴니버스 조사형태로 자체 설계한 문항을 통계분석한 자료이다. 2차레에 걸쳐 실험 조사를 한 이유는 옴니버스 조사의 특성상 한 번에 많은 문항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조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두 차례로 나누었다. 두 번에 걸친 조사의 설계는 〈표 2〉와 같다.

IV. 자료분석 결과

1. 설문기획 측면

1) 설문형식의 오류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하는 많은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문항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제는 응답자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1차 실험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에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와 함께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어 보았다.

〈표 3〉 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평가 및 대통령 직무에 대한 인지 여부(1차 실험조사)
(단위: 명)

		대통령 국정수행 인지도		전 체
		인 지	불인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점척도)	긍정평가	204	132	336
	부정평가	343	249	592
	모름/무응답	27	45	72
전 체		574	426	1,000

〈표 3〉의 조사결과와 같이 대통령 직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전체응답자의 57.4%에 그쳤다. 반면에 전체 응답자의 42.6%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응답자였다. 이 조사결과를 통해 상대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긍정과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긍정과 부정평가를 임의적으로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아닌 응답자 개인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preference)가 작동한 것이다. 정리하면, 설문의 구성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일(대통령의 일 즉, 관련 정책이나 정치적 활동 등 대통령이 조사시기에 즈음하여 관여한 업무 내용)’을 잘하는지 여부를 물어 본 것이므로 대통령의 일을 응답자들이 모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설문의 구성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로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응답자 개인들은 응답하는 순간에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들을 평균화하여 답변하게 되며 핵심적인 사항들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인데 아예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균형된 답변이 불가능할 것이다(Zaller & Feldman 1992).

〈표 4〉를 보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강한 비지지층’이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응답도 직접적인 지지도 여부를 물었을 때 그 비율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을 거치면서 지지도가 내려갈 것으로 보았으나 기존 지지층의 결집으로 오히려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던 예도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지지를 물어보았을 때 분명한 선호기준에 의한 응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4〉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질문과 대통령지지 여부 질문의 비교(1차 실험조사) (단위: 명)

		대통령 지지도 (4점 척도)					전 체
		매우 지지	대체로 지지	대체로 지지하지 않음	전혀 지지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점 척도)	매우 잘하고 있다	26	27	1	1	1	56
	다소 잘하고 있다	29	175	67	3	6	280
	다소 잘못하고 있다	0	59	167	143	1	370
	매우 잘못하고 있다	0	6	57	151	8	222
	무응답	0	28	26	0	18	72
전 체		55	295	318	298	34	1,000

2) 척도의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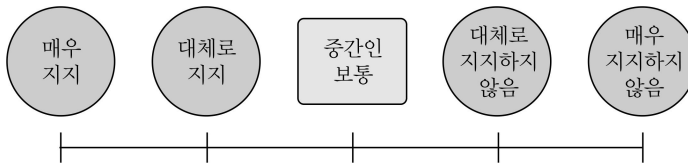
설문 구성에서 살펴보아야 할 또다른 요소는 바로 척도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치사회조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법 중의 하나가 바로 리커트(Likert) 척도이다. 현재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 사용되는 리커트 척도는 4점 척도(매우 긍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매우 부정)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응답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는 응답이라면 4점 척도 방식이 타당한 것일까?

리커트 척도는 등간점수를 부여하는 임의배정법으로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절대 영점을 이동하여도 무방하며 서열 순서의 의미만 유지하면 되는 방법이다(이정호 2007). 즉 대통령 지지도는 국정수행의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응답자 개인 자격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지지한다’와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지 강도를 설명해 주는 구분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응답회피 이외에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있어 ‘중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리커트 척도가

서열 순서의 의미를 유지하는 서열 척도이므로 <그림 5>와 같이 ‘대체로 지지’와 ‘대체로 지지하지 않음’ 사이에 중립적인 등간 점수의 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차 실험조사에서는 4점 척도로 구성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의 응답자들이 5점 척도에서는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4점 척도의 지지도 문항 보기에서 ‘다소 잘하고 있다’를 선택한 97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소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1명이나 되었다. 5점 척도에서는 긍정 비율이 23.9%에 그쳤고 부정비율은 44.4%에 달했다. 이것을 볼 때 기존의 4점 척도 방식은 응답자의 판단을 지극히 강제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면 실질적인 긍정과 부정비율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리커트 5점 척도 방식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표 5> 대통령 지지도 비교: 4점 척도 vs. 5점 척도

(단위: 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5점 척도)						전 체
		매우 잘하고 있다	다소 잘하고 있다	보통 이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무응답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4점 척도)	매우 잘하고 있다	40	29	9	0	0	2	80
	다소 잘하고 있다	11	132	97	8	2	4	254
	다소 잘못하고 있다	0	6	101	160	22	5	294
	매우 잘못하고 있다	1	0	9	62	148	0	220
	무응답	4	16	75	34	8	15	152
전 체		56	183	291	264	180	26	1,000

2. 통계 분석 측면

본 연구의 1차적 목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측정문항이 과연 특정한 판단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2차적 목표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응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곤수(2009)는 대통령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는 국가 경제상황, 경제정책 평가 등의 경제적 요인변수와 정당지지 등의 비경제적 요인변수 그리고 연령과 학력 등의 개인 속성 변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 실험조사의 상관성 분석결과인 <표 6>을 보더라도 특정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한 대통령 국정수행 문항과 관련 문항과의 상관성은 다음에 제시하는 <표 6>과 같다. 이 상관성 분석은 1차 실험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표 6> 대통령 국정수행 문항과 정책 관련 문항의 상관성

		대통령국정수행평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Pearson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N	1000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	Pearson상관계수	.146**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본인의 이념	Pearson상관계수	-.010
	유의확률(양쪽)	.740
	N	1000
현 국가 경제상황 평가	Pearson상관계수	.265**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현 개인 경제상황 평가	Pearson상관계수	.106**
	유의확률(양쪽)	.001
	N	1000
현 국가 안보상황 평가	Pearson상관계수	.134**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뒤에 계속)

(앞에서 계속)

현 지지정당	Pearson상관계수	.220**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다음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Pearson상관계수	.161**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Pearson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N	1000
성 별	Pearson상관계수	.069*
	유의확률(양쪽)	.028
	N	1000
연령별	Pearson상관계수	-.046
	유의확률(양쪽)	.146
	N	1000
지역별	Pearson상관계수	-.004
	유의확률(양쪽)	.888
	N	1000
학력별	Pearson상관계수	-.102**
	유의확률(양쪽)	.001
	N	1000
소득별	Pearson상관계수	-.044
	유의확률(양쪽)	.164
	N	1000
대통령 지지도 (지지하는지 여부)	Pearson상관계수	.457**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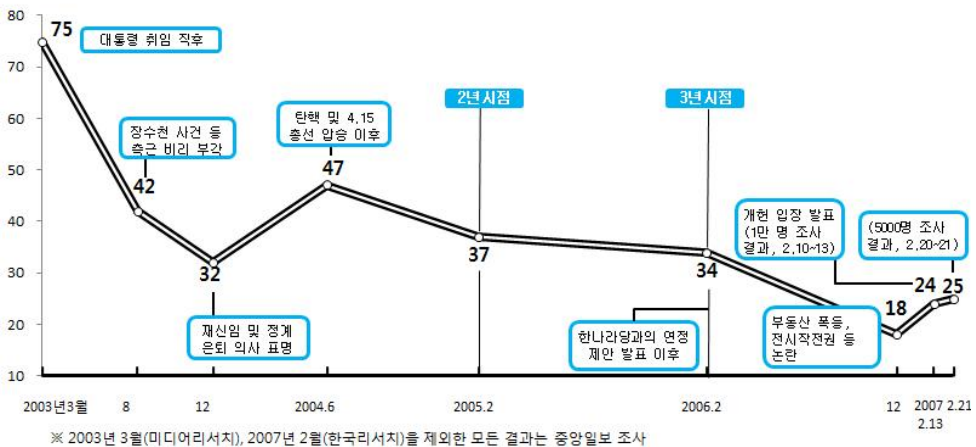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과 부정평가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과 대통령의 지지도를 묻는 문항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음을 <표 6>을 통해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나온 피어슨 상관계수 값을 비교해 보더라도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긴 하나 정당지지도 역시 중요한 상관성이 있었고, 두 요인 모두 계수값은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인다. 반면에 대통령 지지 여부 형태로 묻는 문항과의 상관성은 계수값 0.457로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요인과는 차별적으로 응답자 개인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사실상의 국정수행 평가임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응답에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이나 응답자 개인의 요인이 부분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총체적 요인을 고려한 응답자 개인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긍정과 부정이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설문문의 구성도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아닌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3. 결과 활용 측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다는 것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분명한 기준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국민 개인이 정치적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를 표방하는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점차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정서가 강해지는 국정 평가 추세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층 결집이 정치적으로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종의 비판적 조정(critical realignment)처럼 정치권력을 바꾸는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에도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Nardulli 1995).



〈그림 6〉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추이

출처: 중앙일보 2007년 2월 25일자.

〈그림 6〉에서 보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단기간 높았던 지지도에서 급전직하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채신임 및 정계 은퇴 의사 표명’ 이후 탄핵 국면을 치닫는 과정에서 지지층의 결집으로 2004년 6월 조사에서는 50% 가까운 지지도를 보여 주었다. 높은 지지도로 여겨지지만 대통령 지지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높다’ 또는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실험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 문항에서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들에 대해 ‘얼마의 지지율’을 대통령의 지지율로써 높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표 7〉의 교차분석표를 얻을 수 있었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의 응답자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연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우선 이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높다고 생각되는 대통령 지지율’을 추정할 수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결과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로 응답한 80명 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한 41명의 과반 이상 응답자는 ‘50% 내외’ 이상은 되어야 높다고 보았다. ‘다소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254명 중에서도 무응답자 14명을 제외한 99명은 ‘50% 내외’ 이상은 되어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답했다. 구간값을 받은 것이므로 과반이상의 응답자를 포함해야 한다면 ‘45% 내외’ 이상으로 응답한 이들이 121명이 된다.

〈표 7〉 대통령 국정수행 응답자들의 ‘높은 지지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높다고 판단되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의견								전 체
		30% 내외	35% 내외	40% 내외	45% 내외	50% 내외	55% 내외	60%대 이상	무응답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매우 잘하고 있다	5	7	16	6	20	5	16	5	80
	다소 잘하고 있다	26	19	74	22	50	10	39	14	254
	다소 잘못하고 있다	41	41	78	19	59	7	40	9	294
	매우 잘못하고 있다	63	16	38	14	44	11	29	5	220
	무응답	23	9	26	7	37	8	16	26	152
전 체		158	92	232	68	210	41	140	59	1,000

한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높은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로 평가한 응답자 294명(무응답 9명) 중 과반 이상인 160명은 ‘높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40% 내외’ 이하로 답했다.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응답자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사되는 시점이나 조사방법 그리고 심지어는 조사대상(조사에 선택 또는 참여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 시점의 대통령 지지도를 높거나 낮다고 단정지어 밝히는 것은 지극히 자극적인 언론의 보도행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우정엽 외 2011).

V.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지지도 문항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여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나 이 내용을 토대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정치권력에 해석적 오해(analytical misunderstanding)가 발생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이후 국민들의 체감 지지도와 언론에 보도되는 조사결과와의 괴리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혀둔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설명력 있는 조사 및 결과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설문기획 측면이다. 현재 많은 대통령 지지도 조사문항이 ‘대통령으로서 일’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실험조사를 통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조사 응답자 중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불과 5% 미만이었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집중도가 높은 선거여론조사에서도 정책효과 변수를 포함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송근원 2011).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일’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적합할 것이며 굳이 ‘대통령의 일’을 묻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정보 습득 밀도가 높은 선거 캠페인에서 정보를 접하고 후보

자를 선택하는 선거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evaluations)보다는 총체적인 후보에 대한 선호(preferences)가 더 작동된다고 볼 때 ‘대통령의 일’을 평가하기 보다는 선호와 비선호를 밝히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Milton Lodge et al. 1995).

한편, 척도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응답하지 못하는 4점 척도 방식은 5점 척도로 선택지를 줄 때보다 더 작위적인 응답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활용자의 관점에서는 4점 척도의 결과가 분명 매력적일 수 있지만 재질문을 통한 강제분류까지 해야 하는 조사과정을 감안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5점 척도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계분석 측면이다. 2011년 9월에 실시한 1차 실험조사 문항 중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문항(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하는지 여부),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비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그리고 응답자 개인의 특성에 관한 문항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는 문항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설문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연관된 일, 즉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묻기보다는 응답자에게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며, 전문가적인 평가의 개념을 내포한 질문형태로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 결과활용 측면이다. 대통령 지지도 조사결과에 대한 ‘높고 낮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언론에서 정하는 감정적(emotional)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매우 낮았다’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림 6>에서 보듯이 집권 4년차까지 대체적으로 30%대 중반 이상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처럼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응답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지지도는 자신의 지지층 비율이 근간(base)이 될 것이다. 모든 대통령을 동일한 조건과 획일적 잣대로 ‘누구보다 더 높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대통령 지지도를 ‘높다’ 또는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 국민(응답자)이라면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도라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것인가’라고 직접 묻고 대통령 지지도 조사문항의 결과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잣대는 만들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시도를 통해 2차 실험조사의 결과 ‘대통령 지지도가 높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고, 이 분석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과 지지하지 않는 응답 모두의 의견을 구한 것이므로 더욱 객관적인 비교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제안

대통령 지지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통령 개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국정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정보를 통해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끔 만들어 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체감만족도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수용 감정의 괴리에서 출발했다. 이것을 설문기획 측면, 통계분석 측면, 결과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도한 목적상의 분석결과와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지만 대통령 지지도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데는 더 추가적인 연구방법과 조사방법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번 연구는 제한된 실험조사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차제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 할 수 있는 1개 문항이 아닌 다수의 문항을 통한 실험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었지만 ‘대통령의 일’을 이해하고 평가가능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기준의 개발과 다른 차원의 문항 구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2010년 특집기획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며 단순 지지도 측정이 아닌 10가지의 필수항목(대중 설득력, 도덕적 권위, 의회와의 관계, 추진력, 위기대응 지도력, 국제관계, 비전과 의제설정, 경제운영, 행정능력, 법치준수)으로 측정하고 있고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 설문하고 있다(김택환·전영기 2010).

둘째는 통계분석 측면에서 주로 상관분석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평가하는 문항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과의 선형관계를 입증하는 데 치중하였다.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환하여 로짓회귀분석 등 좀 더 심화된 통계적 분석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도와 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과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례나 같은 나라의 여러 대통령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적인 통계값을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응답자 인식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조사결과의 언론 노출에 많이 영향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디어 매체별 수용행태나 언론 매체 보도 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벗어나 실제 조사결과를 기사화하는 언론인과 이를 수용하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접)와 같은 정성조사를 추가하면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현재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문항의 문제와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문항의 중요성과 조사결과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3. “한·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 《세계 지역연구논총》 24(1): 27-47.
- 가상준. 2005. “대통령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 선거: 1952년-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1): 153-174.
- 강경태. 2004. “부시(George W. Bush)대통령 지지도 분석.” 《미국학논집》 36(2): 5-28.
- 김택환·전영기. 2010. 《다음 대통령》. 도서출판 금요일.
- 송근원. 2011. “후보자 득표율 예측 모형과 지표의 구성: 2010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2(1): 31-63.
- 우정엽·김지윤·문종배. 2011.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과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 《조사연구》 12(1): 155-176.
- 이강로. 2010.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수행 비교: 임기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대한정치학회보》 18(1): 49-74.
- 이곤수. 2009.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 취임 1년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105-137.
- 이정호. 2007.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마케팅 리서치 비법노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성검·김지연·나윤정·이명진. 2007.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6년 지방선거 전화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8(1): 31-54.
- 허순영. 2004. 《조사연구를 위한 표준화된 설문작성법》. 자유아카데미.
- Zaller, John and Stanley Feldman. 1992. “A Simple Theory of Survey Respons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3): 579-616.
- Lodge, Milton, Marco R. Steenbergen, and Shawn Brau. 1995. “The Responsive Voter: Campaign Information and the Dynamics of Candidate Evalu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309-326.
- Nardulli, Peter F. 1995. “The Concept of a Critical Realignment, Electoral Behavior, and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1): 10-22.
- Lowi, Theodore J, Benjamin Ginsberg, and Kenneth A. Shepsle. 2010. *American Government* (11th ed.). W.W. Norton & Company.

<접수 2011/12/16, 수정 2012/2/25, 게재확정 2012/2/29>